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 : 마가복음 16:1-20

요절 : 마가복음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지 삼일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민 구속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세계선교 사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비전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고 불타는 세계선교 사명을 다시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부활하신 예수님(1-13)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1)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사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3)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굴로 만들고 그 입구는 돌로 막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위해 돌을 굴러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오가는 중에 여인들은 어느덧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저만치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애뜻한 사랑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속에는 웅덩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청년(천사)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5)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 소리쳤습니다. ‘에그머니!’ 그런데 청년은 이런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6)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이는 실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아인슈타인도 다 죽었습니다. B.C 4세기 황금 마차를 타고 세계를 휘어잡던 알렉산더나 시저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였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했던 정기스칸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승리자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죽음에 간헐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부활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26)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을 줍니다.

인간은 본래 에덴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분리시키고 인간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시켰습니다. 또 죄의 결과 죽음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난이나 질병 경제 정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삼 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실(죄 사함에 대한)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고전15:17)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15:2)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 삶의 시작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停車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편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어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상대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순간에는 아름다우나 결국은 시들고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인생의 공든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죽음 때문에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패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두려움과 운명주의, 패배주의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승리감에 충만하여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 같

으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5,57)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기쁨과 희망과 승리와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전공과 제자양성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음에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심령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6b) 천사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두었던 빈 무덤을 보여 주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해 줍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공자도 진시황제도 무덤에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해 줍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쓴 『빌라도 보고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여명이 살아 있었습니다.(고전15:6)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심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7)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 후의 방향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부활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시16:10,11) BC 1000년경에 예언한 그 말씀 그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9-11)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야" 하심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인은 참으로 비천하고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한 가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픔이 가시고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가서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격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헛것을 본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헛것을 보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직접 12제자이며, 사도들인 자신들을 찾아오시지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실의에 빠져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12,13)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말씀을 기초로 부활 신앙을 심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열 한 제자들은 2진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라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볼 때 제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처럼 두 번씩이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믿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 주어도 믿지 않고자 작정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부활의 증언을 영접할 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낙향하는 두 제자들에게는 보이지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활을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믿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믿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접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증언하므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지, 에덴동산의 사건 현장에 없었어도 그대로 믿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증인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사실을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는 열 한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증언, 두 제자의 증언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으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그들에게 마리아와 두 제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장차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특징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언해 주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 훈련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통해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29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20:27) 그러자 도마가 이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심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요20:28)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요20:29)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한번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제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문 곧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I.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신 예수님(14-20)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14) 그 후에 예수님은 열한 제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울다가 지쳐 이제는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또 배가 고팠습니다. 이들에겐 따뜻한 동정과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나?” 밥 먹을 때는 개도 꾸짖지(책망)않는다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점을 꾸짖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꾸짖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나 증인들을 보내 증언해 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강조해 가르치고 심고자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믿어야 함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일 할 수 있는 줄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때를 따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인이 와서 증언하였는데 그것도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와서 기뻐 증언하는데 왜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난 후 나라가 망하기까지 늘 믿음이 없어 책망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겠

습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히브리서 11:6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부터 순교의 믿음, 홍수 심판에 대한 믿음,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가 가졌던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 등등, 허다한 믿음의 예를 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상주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책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한데 마음을 겸손히 하면 믿을 수 있는데 고집 때문에, 왜 마리아 자매님에게 먼저 나타나 자존심을 구기시는가, 아니 우리가 마리아 자매 말을 듣고 믿어야 하겠어? 왜 먼저 낙향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 말을 듣고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순전히 인간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고집, 사람이 이런 고집으로 망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데 완악해서 버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고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꾸짖으시고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심으로 제자들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을 깨시고 부활 신앙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5)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세계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신 것은 부활신앙이 없이는 이 세계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증언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선교는 꿈과 이상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이 어떠한 어려운 장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온 세상이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대상이 온 천하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 만민의 상태가 어떠한가, 잘 말해 줍니다. 천하 만민은 죄와 사망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나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은 사면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하 만민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

나 못생긴 자나 검둥이나 흰둥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밖에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만을 꿈꾸고 편협한 유다이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수 나라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협한 유다이즘을 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온 천하 만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오늘날 제자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범세계적이에요, 역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조선대 2만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미국, 아프리카, 유럽, CIS에서도 증언해야 합니다. 회교권이나 중국, 북한에도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16)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망권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무의미가 사라지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파멸하게 됩니다. 심판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온 천하 만민이 반드시 믿어야 될 절대적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어린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전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형편에 관계없이 형편을 뛰어넘어 그들을 보실 때 앞으로 세계를 감당할 일꾼으로 보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역사 창조자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비전에 불타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대로 이들은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구멍가게를 한 사람은 아무리 잘 났어도 구멍가게 주인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계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인생이 세계적이 되고 위대해 집니다.

넷째,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 말씀은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뿐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선교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 갈 때 앰블런스(救急車, ambulance)는 사이렌을 켜고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가는 선교사는 가장 먼저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선교가 좋은 줄은 알지만 막상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당장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선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선교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할 때 지금은 부족하고 쓸모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속 역사에 귀히 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당장에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년 후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못가더라도 그 아들이나 손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선교 사명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19,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복음 역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18세기말 윌리엄 케리(William Currey)는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하고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UBF 모임을 크게 쓰시는 이유도 세계 선교 사명을 단순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세기 말 한국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한국 지성인들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선교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계선교입니다. 내가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계선교 사명입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현재 세계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제목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세계 233개국에 10만명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에 개척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리고 북한(김일성대학)과 모슬렘 국가(사우디 리야드 대학)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세계선교 사명을 영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